

 POSRI 보고서

중앙아시아의 시장 특성과 공략 방안

오영일 수석연구위원, 지역·경제연구센터 (youngil@posri.re.kr)

[목 차]

1. 중앙아시아의 지역 특성
2. 중앙아시아의 시장 특성
3. 중앙아시아 공략을 위한 네 가지 제언

Executive Summar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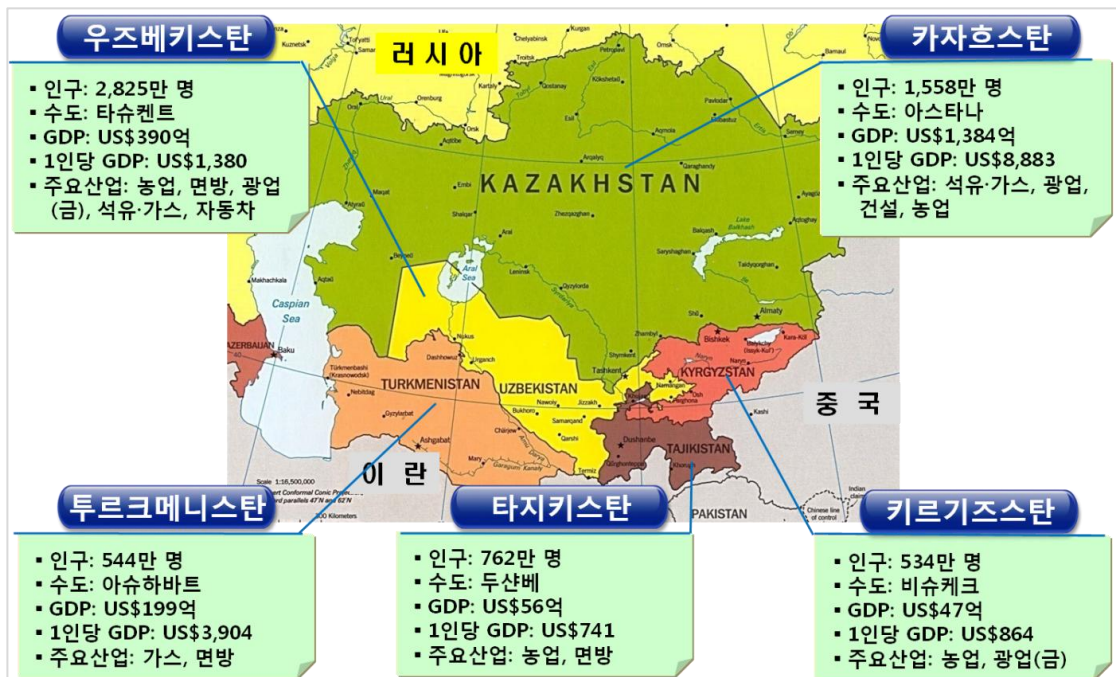
- 중앙아시아는 지리, 정치, 경제적 특수성으로 인해 끊임 없이 열강이 각축을 벌이는 지역
 - 19세기에는 인도로 가는 통상로 확보를 위해 제정 러시아와 대영제국간 경쟁, 21세기에는 에너지 자원확보를 위한 미국과 중앙아시아에서 파워를 지키려는 러시아간 경쟁
- 첫째, 중앙아시아는 원료탄·철광석 등 철강 자원은 없는 편이나 다양한 대규모 광물 자원을 보유
 - 원유·가스·석탄(발전용)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크롬·아연은 물론, 몰리브덴·우라늄·희토류 등이 매장
- 둘째, 최근 경제 급성장 했지만 재정이 약해 사업 발주 능력은 여전히 취약
 - 최근 중앙아 각국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상당 부분이 MDB (Multilateral Development Bank: 국제개발은행) 자금으로 진행되고 있어 발주처(정부) 재정 부족 문제를 피해가는 방안으로 활용 가능
- 셋째, 다양한 사업 리스크 등 BIZ 환경 측면의 매력이 약함
 - 중앙아 국가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한국 기업들이 휩쓰는 등 오히려 한국기업들은 외국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앙아 경험이 많은 편
- 중앙아시아 시장 활용을 위한 네 가지 제언
 - 첫째, ‘First mover advantage’가 강하게 작용하는 곳임을 기억하라
 - 둘째, 기존 거점과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여라
 - 셋째, 아직은 안전한 MDB 지원 사업 위주로 접근하라
 - 넷째, 중장기 차원의 원료조달 및 해외사업 확장 창구로 활용하라

1. 중앙아시아의 지역 특성

□ 지리, 정치, 경제적 특수성으로 끊임 없이 열강이 각축을 벌이는 대형 체스판

- 고대: Silkroad의 심장부로 동서문명을 연결하는 교역의 중심지
- 19세기 말: '거대 게임(The Great Game)'의 현장
 - 인도로 가는 통상로 확보를 위한 제정 러시아와 대영제국간의 치열한 경쟁
- 21세기 현재: '新거대 게임(New Great Game)'의 현장
 - 카스피해 에너지 자원 확보와 이란·아프간 견제를 위해 이 지역을 활용하려는 미국과 자신의 앞마당 중앙아시아에서의 파워를 지키려는 러시아 간의 파워 게임

<중앙아시아 5개국 개황>



자료: IMF, World Economic Outlook, 2012 Oct.

2. 중앙아시아의 시장 특성

① 다양한 광물 자원을 보유

□ 중앙아는 원유·가스·석탄(발전용)은 물론, 크롬·아연·몰리브덴·우라늄·희토류 등 다양한 대규모 광물 자원을 보유

- 중앙아의 숨은 진주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
 - 카자흐는 원유와 가스 매장량이 각각 세계 13, 19위이고, 석탄 생산량은 세계 10위
 - 우즈벡, 올 10월경 PetroVietnam에 의해 1억 배럴 규모의 자이언트급 유전이 발견되며 새로운 주목을 받기 시작
- 풍부한 비철금속 및 희토류, 그리고 우라늄 보유
 - 크롬(카자흐 세계 1위), 아연(카자흐 세계 4위), 몰리브덴(카자흐 세계 9위, 키르기즈 세계 10위, 우즈벡 세계 12위), 텅스텐(카자흐 세계 12위) 등
 - 키르기즈, 카자흐에서는 스칸듐(Sc no.21), 테르븀(Tb no.65), 디스프로슘(Dy no.66) 등 희토류 생산이 구소련 시절부터 이루어졌고, '09년에는 캐나다 Stance Energy가 키르기즈 희토류 광산(Kuttasay-II)을 매입하기도 함.
 - 전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13.5%인 약 45만 톤이 동지역에 있으며, '07년 일본 컨소시엄(스미토모, 도쿄전력)은 16만t 규모의 카자흐 우라늄광산 개발권을 획득했고 '08년 미쓰이 상사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합작으로 우라늄 지질 조사 회사 설립

□ 하지만 원료탄, 철광석 등 철강 자원은 없는 편

- 철광석은 카자흐에 약 3억3천만 톤 있으나 Fe 평균 함유량이 40% 내외에 불과하고, 원료탄은 거의 전무한 수준
 - 카자흐 보유 철광석 대부분은 Arcelor-Mittal Temirtau 제철소가 이미 점유
 - 우즈벡, 추정 매장량 약 5억 톤의 철광석 있으나 Fe 함유량 20% 미만

② 발주처 재정이 약해 사업 발주 여력 취약

□ 최근 경제가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원은 여전히 부족하고, 특히 글로벌 경기 하락으로 투자 유치가 용이치 못한 상황

- 2000년대 중반 이후 자원개발로 경제는 급성장했지만 '91년 소련 붕괴 이후 추락한 국가경제를 재건하기에는 아직 지출할 곳이 산더미
 - 산업 인프라는 외국인 투자로 해결하고 정부 재정은 투자 유치가 용이치 못한 교육, 의료, 복지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
 - '08~'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자금 경색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여건도 급격히 악화

□ 하지만 중앙아에 대한 MDB(Multilateral Development Bank: 국제개발은행)의 지원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활용한 시장 기회 확대

- 최근 중앙아 각국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상당수가 MDB 자금으로 진행되고 있어 발주처(정부) 재정 문제를 피해 사업 추진 가능

- 국가별로는 우즈벡, 산업별로는 운송(도로·철도 등), IT 분야에 집중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(대표적 사례는 [별첨] 참조)
- **MDB 지원 금액도 늘었지만 중앙아 국가들의 MDB 자금 활용 경험이 축적되어 사업 진행이 과거에 비해 활발해짐**
 - 과거에는 국제입찰, 사후관리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중앙아 국가들의 이해 부족으로 MDB 자금 집행이 원활치 못했으나 최근에는 경험 축적으로 상호 이해 수준이 크게 향상됨¹

③ 비즈니스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편

□ 절대적 기준에서 볼 때 중앙아의 BIZ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

- 카자흐를 제외한 4개국은 대부분의 사업환경 지표에서 최하위 수준
 - 아직 국영 기업 시스템이다 보니 업무 추진 효율성이 극히 저조
 - 특히 우즈벡, 투르크멘은 아직도 폐쇄적 경제정책을 펴고 있어 시장 진입도 쉽지 않을 뿐더러 비합리적 제도들도 많은 편
- 키르기즈를 제외한 4개국은 20년 이상의 장기 독재 상황으로 향후 정권 교체 시 단기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
 - 키르기즈는 '10년 유혈사태로 대통령 교체

□ 한국 기업들은 외국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앙아 경험이 많은 편이고 리스크 대응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어 유리

- 중앙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진행하는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들이 휩쓸고 있음 (eg. 카자흐 발전소, 석유화학, 신도시, 우즈벡 가스화학, 면방직, 투르크멘 정유 등)
 - 우즈벡에서 진행된 대우인터내셔널의 면방직 사업은 중앙아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언급되고 있음
- 신흥국 사업은 대부분 어느 정도 리스크가 존재하며 중앙아 사업 환경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
 - 카자흐, 키르기즈가 BIZ 환경 개선이 가장 빠른 국가(세계은행, '11년)
 - 이미 알려진 것은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며, 더 중요한 것은 국별 니즈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추진 역량 강화임

¹ EBRD 우즈벡 오피스는 현지 정부와의 잦은 마찰로 '11년 우즈벡 오피스를 폐쇄하였는데, 이후 우즈벡 정부측의 입장이 급속히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함.(ADB 우즈벡 오피스 담당자 인터뷰. 2012.10 월)

3. 중앙아시아 공략을 위한 네 가지 제언

□ 첫째, 'First mover advantage'가 강하게 작용하는 곳을 기억하라

- 중앙아는 5개국 GDP를 다 합쳐도 2천억 달러 내외 밖에 안 되는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후발 주자가 기회를 잡기란 구조적으로 어려운 곳
 - 최초 진입을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각오해야 하지만, 일단 진입하여 정착만 하면 역으로 진입장벽 효과를 누리며 안정적 사업 유지 가능
 - 시장에 대한 충분한 확인 후 진출하겠다는 전략은 중앙아와 같은 중소형 신흥국 접근에 적합치 못함

□ 둘째, 기존 거점과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여라

- 기존 사업 경험과 거점 활용을 통해 Total cost를 줄이는 경험곡선효과(Experience curve effect)를 극대화해야 함
 - 과거 시행착오의 경험을 활용하여 초기 비용과 Operation cost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

□ 셋째, 상대적으로 안전한 MDB 지원 사업 위주로 접근하라

- 기획 단계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현지 정부와의 밀착형 사전 협의를 통해 MDB 파이낸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
 - 정부 직접 발주사업은 Payment 리스크, 사업 추진 상의 이견 조율이나 사후 관리 측면에서 여전히 리스크가 크므로 가능하면 MDB 파이낸싱 프로그램 활용
- MDB 파이낸싱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대형 사업에 sub-contractor나 main supplier로 들어가는 방안도 초기단계에서는 안정적인 BIZ 모델
 - 화학·정유 플랜트, 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기계설비나 대형 철 구조물 공급 등이 유리한 분야

□ 넷째, 중장기 원료조달 및 해외사업 확장 채널로 활용하라

- 시장이 거대하거나 선점이 시급한 곳은 아니지만, 크롬 등 비철금속 원료 확보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역(특히 카자흐)
 - 저품위 원료 활용 기술이 개발될 때를 대비한 잠재적 원료 공급 시장으로 활용 가능(중장기 관점)

[별첨] 중앙아시아 주요 MDB 지원 프로젝트

국 가	프로젝트	총 사업규모	MDB	Contractors
우즈베크	수르길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	40억 달러	ADB, 중국개발 은행, 한국수은	호남석유, KOGAS, STX에너지
중앙아 5국	고속도로 건설 (총연장 24천km)	210억 달러	ADB	E&C, 중국, 독일, 스페인 건설사
카자흐	발하쉬 화력발전소 건설	38억 달러	ADB 등	삼성물산, KEPCO
투르크멘	철도 건설	1.25억 달러	ADB	n.a.

자료: www.adb.org, 각사 인터뷰 종합

[참고 자료]

조영관 외, 중앙아시아 자원에너지 투자환경 분석과 정책시사점,
대외경제정책연구원, 2009

ADB 홈페이지 <<http://www.adb.org>>

IMF 홈페이지 <<http://imf.org>>